



기자화 '생선인간'의 대결이다. 조정석(왼쪽)과 이광수는 22일 나란히 개봉하는 영화 '특종: 량첸살인기'와 '돌연변이'를 통해 티켓파워를 노린다. 서로 지닌 매력은 다르지만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박빙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주필름·영화사상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0년 10월 21일)

MBC '전원일기' 방영 10주년



'막장' 등 온갖 논란을 모으는 드라마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정감 있고 우리네 삶을 돌아보게 하는 드라마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반응은 아닐까. '전원일기'로 불린 농촌드라마도 그런 무대이다. 하지만 현재 각 방송사 편성표에는 농촌드라마가 단 한 편도 없다. KBS 1TV '오! 할매'가 그 명맥을 이어졌지만 그마저도 7월22일 종영됐다.

농촌드라마를 대표하는 드라마로는 단연 MBC '전원일기'(사진)가 꼽힌다. 1990년 오늘, '전원일기'가 방영 1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며 이를 뒤인 10월23일 489회분이 방송됐다.

'전원일기'는 1980년 10월21일 차범석 극본, 이연현 연출로 '박수칠 때 떠나라'를 첫 회로 삼아 시청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방송 10년 동안 차범석, 김정수 등 5명의 작가와 이연현, 권이상 등 6명의 연출자들이 최불암, 김혜자, 김수미, 정애란, 김용건, 고두심, 유인촌, 박순천, 박은수, 김혜자 등 쟁쟁한 연기자들과 함께했다.

'전원일기'는 최불암의 김희재네와 김수미의 일용네 가족을 중심으로 양촌리라는 농촌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우리네 농촌 혹은 시골마을에서 흔히 겪어왔을지언정 다양한 에피소드가 등장했고, 시청자는 '전원일기'를 통해 휴교와 고향, 이웃의 소중함을 감동과 훈훈한 웃음으로 일깨웠다. 농촌의 힘겨운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많은 시청자는 공감 속에 드라마를 지켜왔다. 그러는 사이 2001년 3월4일 1000회를 지나 2002년 12월29일 종영할 때까지 모두 1088회 동안 방송된, 국내 최장수 드라마로 남았다.

또 김지영, 남성진, 임호 등이 복귀와 수남이, 금동이 등 극중 아이돌이 저러나 성인이 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김지영과 남성진은 이 드라마를 계기로 실제 사랑을 싹틔워 부부가 되는 인연을 맺기도 했다. 이제 성인연기자로 우뚝 선 류덕환은 '전원일기'의 일용이 아들 순길 역을 맡기도 했다.

이후 농촌드라마는 KBS 1TV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와 '산내며 남촌에는' 등을 거치며 그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런 농촌드라마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농촌드라마가 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실력파' 기자 조정석 vs '개성파' 생선 이광수

위클리 매치

영화 '특종' vs '돌연변이' 흥행 대결 조정석, 연기력·티켓파워 이미 검증 생선탄 쓴 이광수, 그만의 팬덤 기대

'특종' 조정석 vs '돌연변이' 이광수			
조정석	이름	이광수	
1980년 12월26일	생년월일	1985년 7월14일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학력	동아방송대학 방송연예과	
2004년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데뷔	2008년 MBC 시트콤 '그분이 오신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의 결정적인 조연 '남득이'	스타덤	2010년부터 출연 중인 SBS '런닝맨'	
조각미남이 아니라서 더 자주 보고 싶은 이미지	매력 포인트	190cm에 달하는 키로, 흡사 '기린'을 연상시키지만 내면엔 마성을 갖춘 '예능 킹'	
웬지 착할 것 같고, 웬지 따듯할 것 같은, 가수 거미와 공개 연애 중	사랑	아직은 '솔로'	

어느 한 명만 선택하기 쉽지 않다. 배우 조정석(35)과 이광수(30)가 22일 나란히 주연영화로 흥행 맞대결에 나선다. 드라마 주인공으로, 영화의 조연으로, 예능프로그램의 주역으로 활약해온 두 배우가 처음으로 이야기 전제를 이끄는 책임을 맡았다. 30대 배우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이들은 아이돌 부럽지 않은 '팬덤'을 가진 스타이기도 하다. 대결의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은 이유다.

●조정석 그리고 이광수가 선택한 영화

'특종: 량첸살인기'(감독 노덕·제작 우주필름)의 조정석, '돌연변이'(제작 영화사 우상)의 이광수 모두 영화에서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하지만 대처법은 다르다. 조정석이 혼돈을 질박한 심정으로 헤쳐나간다면 이광수는 조용하게 자신만의 저항법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

'특종'은 희대의 오보 사건에 휘말린 방송사 기자의 고군분투기. 조정석은 특종 육십에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다. 촬영 전부터 "저녁 방송뉴스를 항상 챙겨봤다"는 그는 "이야기를 주도하는 입장이라 부담이 컸지만 연기까지 방해하지는 못했다"고 자신했다. "주어진 기회를 끝까지 완성해보자는 마음으로" 담백고, 덕분에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도 따른다.

'돌연변이'의 이광수는 8kg 무게의 생선탈을 쓰고 출연 분량 전부를 소화했다. 컴퓨터 그래픽 도움도 받았지만 현실감을 위해 대역은 마다했다. 분명 탈을 쓰고 있는데도 세세한 표정까지 포렷하게 상상될 만큼, 열연이다. 성과는 노력의 결과다. 연출자 권오광 감독은 "이광수는 걸음걸이부터 어깨의 움직임 등을 통해 세밀한 감정을 계속 표현했다"고

귀렷했다. 영화는 신약개발로 생선인간이 된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이면에는 사회를 향한 날선 시선도 담겼다. 이광수를 통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성장통과 '다른 세상'을 향한 도전 역시 극적으로 표현됐다. 이광수가 아닌 다른 배우를 떠올리기 쉽지 않다는 고부적인 평가가 대부분. 아직 흥행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출발점에서 본다면 그의 선택은 옳았다.

●'승부수' 그리고 '팬덤'

이광수는 주로 비현실적이고, 소외받는 인물을 맡아왔다. 그를 스크린에서 주목하게 만든 영화 '좋은 친구들'은 물론 SBS 드라마 '팬텀'이 사랑이야기에서도 그랬다. '돌연변이'는

그런 과정의 집약체라는 점에서 그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광수는 "주변에서는 내가 인간이 아닌 그 외의 캐릭터와 더 잘 어울린다는 말도 해준다"며 "생선인간이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사실 누구보다 현실적인 캐릭터이다.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언제 또 기회가 올까 싶어 나섰"고 밝혔다.

그런 그의 팬덤은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을 통해 국내 미취학아동부터 중장년층을 넘나드는 팬을 확보했고 이미 아시아까지 점령한 한류스타다.

자신만의 개성이 확실한 이광수에 비해 조정석은 '안 들게 없는' 배우다. 멜로는 물론이고 정극과 코미디를 거뜬하게 넘나든다. 어느 장르를 만나도 제 몫, 그 이상을 해냈다. '특종'에서는 더 과감하게 표현했다.

영화에서 조정석은 이혼과 해고 위기에 놓인 처지의 캐릭터로 관객을 웃기고 긴장케 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상황을 통과한다. 자신 만만한 활약이다.

티켓파워에서도 이미 검증된 실력자. 데뷔작 '건축학개론'부터 '관상', '역린', '나의 사랑 나의 신부'까지 빠짐없이 흥행에 성공했다. 제작진은 물론 관객에게도 믿음직하다는 의미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수지 볼까, 박보영 볼까...벌써부터 고민 되네

'도리화가' '열정...' 내달 25일 개봉

수지를 볼까, 박보영을 볼까. 11월25일 스크린에서 이색적인 대결이 펼쳐진다. '첫사랑 아이콘' 수지와 '리블러' 박보영이 동시에 영화를 내놓기 때문이다. 상큼

한 이미지로 폭넓은 팬을 확보한 스타라는 공통점에서 이들의 대결이 시선을 끈다.

수지는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도리화가'(감독 이종필·제작 영화사담담)가 그 무대로, 2012년 '건축학개론'으로 거둔 성공 이후 심사숙고해 고른 작품이다. 유교 사상이

여전했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여류 소리꾼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다. 최고의 인기 아이돌 스타 수지가 한이 서린 인물로 어떻게 완성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보영의 선택 역시 과감해졌다. '열정' 같은 소리고 있네'(감독 정기훈·제작 반짝반짝영화사)를 통해 신문사에 갓 입사한 신입기자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펼쳐낸다. 그동안 로맨스 장르에 주력해온 그가 이번에는 남자배

우와 펼치는 사랑 대신 세상과 부딪치면서 삶을 개척하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보여준다.

수지와 박보영의 결에 목격한 40대 배우가 포진한 점도 겹친다. 수지의 상대는 류승룡이다. 스승과 제자로 나서 판소리를 매개로 신뢰와 마음을 나눈다. 박보영이 만난 배우는 정재영이다. 직속상관과 그 부하 직원으로 관계를 맺은 이들은 결코 섞일 수 없는 극과 극의 상황을 펼쳐낸다. 이해리 기자

■ 빅 마우스

- "카메라가 계속 날 찍고 있는 악몽 쫓다."(연기자 이희준) 20일 tvN 예능프로그램 '할매네 로망' 제작발표회에서,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한 소감을 전하며.
- "복면 속에서 미소 지었다."(가수 왁스) 20일 MBC F M4U '2시의 데이트 박정림입니다'에서, 최근 출연한 '복면가왕'에서 판정단이 아이돌로 추측했다며.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강한남자 뉴맨!!

평상시 사이즈	뉴맨 호수
6.50 8	주문 제작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cm	주문 제작

발명특허! **특허청** 발명특허! **강한남자 뉴맨!!**

<발명 특허출원 요지>
본 발명은 성기능 강화용 링에 관한 것으로서, 남성의 성기에 끼워서 성기로 많은 양의 혈액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보다크고 강하게 발기가 이루어 지도록 함은 물론, 한번 발기된 상태에서 혈액이 성기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주게 되어 보다 장기간 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남성의 성기능 강화용 링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위와같은 요지로 뉴맨은 2007년08월31일, 발명특허 제10-0756243호를 받았습니다.

구매보다 더 간단한 반품!
15일간 사용해보고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이라는 메모와 '뉴맨'을 보내주시면 도착 다음날 100%반품,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택배비 고객부담)
구매보다 더 간단한 반품! '뉴맨'의 자신감입니다.

출시10년! 20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 '뉴맨'!

DAUM NAVER 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사용후기가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환불

T. 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타운9길 20 (우면동) (우)케이맨데이스포츠 동신빌딩 허기 서초 0701호